



201

충청북도

# 의회소식

( )360-765

158 |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 11 )



## 285 ( ) ( )

: 2009. 11. 20( ) ~ 12. 24( ) (35 )

11 20 (14:00) ■	1. 285 - : 2009. 11. 20. ~ 12. 24(35 ) 2. 2010 3. 2010 4.
11 21 ■ ~ 12 1 ■	- (11. 23 ~ 12. 1 / 9 )
12 2 ■ ~ 12 8 ■	- 2010 - 2010
12 9 ■ ~ 12 14 ■	- 2010 - 2010
12 15 (11:00) ■	2 1. 2010 2. 2010 3. 2009 3 가 가 4. 2009 3
12 16 ■ ~ 12 20 ■	- 2009 3 가 가 - 2009 3
12 21 ■ ~ 12 23 ■	- 2009 3 가 가 - 2009 3
12 24 (11:00) ■	3 1. 2009 3 가 가 2. 2009 3 3. 2009 4.

## 284 ( )

충청북도 의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284회(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도정질문 관련사항, 영리행위와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금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0회 전국체전, 국회의

원 재보궐선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285 ( )	•
• 2009	•
• 2009	•
• 3 2010	•
• 2009	•
• 3 2010	•
• 2009	• 3 2010
•	•
• 2009	• 3 2010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도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시회 준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추석명절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 대책, 충북미래관 개관, 바이오코리아2009 행사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작된 2009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추진되어 온 여러 가지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새

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와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 . 1>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 정책은 관광홍보에만 치중해 관광자원 활용방안과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벨트 구축으로 테마형 관광명소 20개소를 개발하는데 176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체험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이미 90년대 초 시작한 관광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형태에 불

과해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UN 평화공원, 괴강과 칠금지구, 천동과 다리안관광지 개발 등 이미 시작한 정책이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치 못함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형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충북도는 12개 시군의 신공동협력시스템을 도입해 기초단체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충북관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특별도와 새롭게 시도하는 관광특별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2>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꺼리는 이유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영한 부서의 담당자, 과장, 국장의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사업은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아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게 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는데 예산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나 교육청이 추구하는 일련의 재정 활동 중, 회계·재원의 구분 없이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기존 조달청 등의 품셈단가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원가분석을 해야 합니다.



< . 1>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책무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인 행정도시 죽이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수정·폐기한다면 반목과 갈등만 양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은 수도권과의 과밀해소와 삶의 질 향상, 충청권은 고부가산업 육성 및 경쟁력 상승 등 전국이 윈-윈(win-win)하는 국토의 기본틀이 완성될 것으로 충북단지 등과 함께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성과를 초월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3> 최근 언론에서 세종시의 전망에 대한 혼란스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당초 원안의 취지대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존 계획이 부족하다면 원안 + 자족 기능이 보완되어 행정수도 버금가는 도시건설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처럼, 앞으로 도 계속 3개 시도가 공조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종시 건설이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원군지역 2개면 11개리 지역을 제외시키고, 연기군 잔여지역이 추가 편입되어도 세종시 원안 건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그 동안 일관되게 건의해 온 것처럼 청원군지역이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우리 충북은 16개 시 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8월 첨단 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155만 도민들의 결집된 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지사의 도정추진에 흠집을 내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며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치권도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자숙하는 모습으로 충북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하여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 부서별 권한위임사항의 변경(추가 및 삭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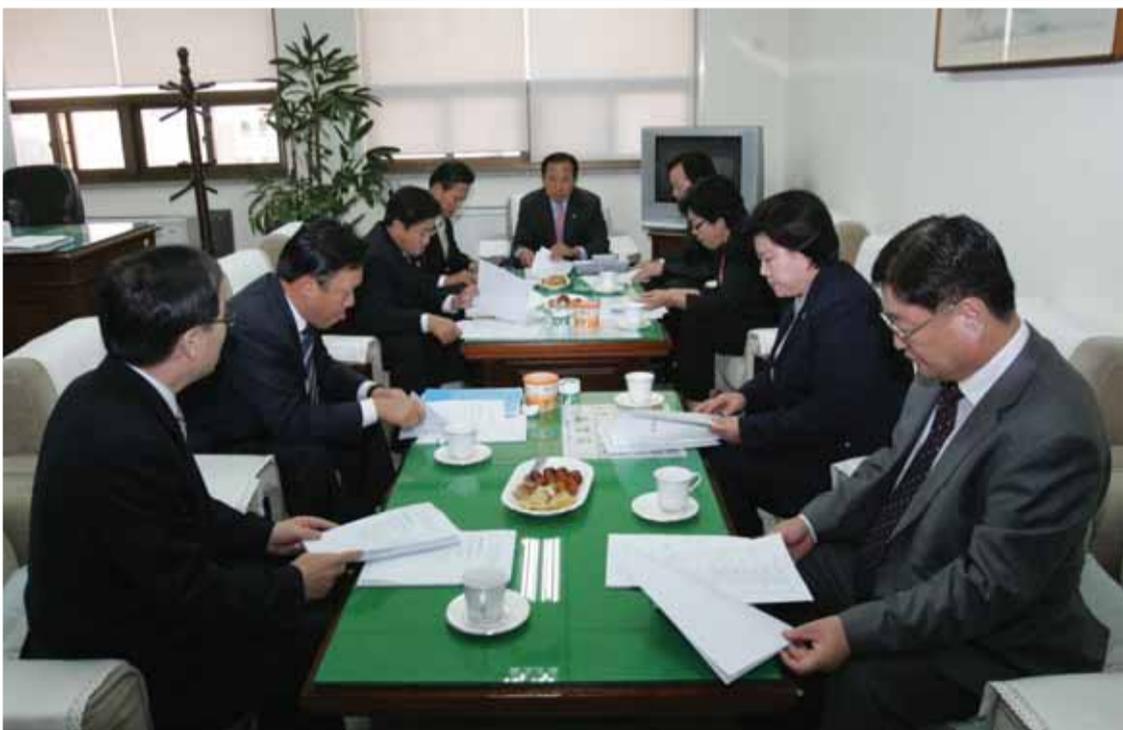
가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150만원까지만 면제함)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



충청북도의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우호협력교류증진과 협정조인을 위해 이범윤 부의장을 단장으로 이영복 운영위원장, 최광욱, 강태원, 최미애, 권광택, 김법기 부위원장, 김인수, 박재국 의원, 이명우 총무담당관, 사무처직원 등 15명을 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와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였다.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방문에서는 지난 2001년 양지역 의회간 교류협정이 체결된 이후 활발하게 지속되어온 양도·성간의 교류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의하고,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방문에서는 양도·자치구 의회간 행정,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발전과 친선우호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우호협력교류협정을 조인하였다.

11 23 9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84회(임시회) 회기 중 10월 12일(제1차)과 10월 21일(제2

차) 회의를 열고 제285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다.

먼저 제285회 정례회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고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제 284회(임사회) 기간 중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변경승인 및 2010년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제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조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제285회(정례회) 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서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4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의결하였다.

특히 기존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심사 의결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혜택과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 2 )

10월 20일 증평군청에서 개최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1차)에 토론자로 참석



( )

10월 10일~11일 제7회 충북대 총동문체육대회 및 보은군에서 열린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에 검도 연합회장으로 경기 총괄



( 1 )

10월 24일 괴산군 동진천변에서 열린 괴산불교사암회 주관의 제1회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유등문화제에 참석



( 4 )

10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영운동 한마음웨딩타운에서 개최된 제14회 충북여성대회에 참석



( 2 )

10월 20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소방가족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에 참석



( 1 )

10월 19일 진천교육청에서 개최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안전처리 협의



( 2 )

10월 10일 영동군 상춘면 삼도봉에서 열린 제21회 삼도발전 방안 협의를 위한 삼도봉 만남의행사에 참석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84회(임사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 관련 성립전 예산안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 구현에 앞장섰다.

먼저, 하반기 정례회 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책분야 및 기관별 감사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 사업예산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라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하던 “100대 다소

비식품 유해물질 집중검사”를 도가 시행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특히,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보강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식약청 이관사업에 대해서는 도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교육청 소관의 성립전 예산안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등 총 16개 사업 29억원으로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주길 주문했다.



( 1 )

10월 27일 영동군 양산면 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양산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준공식에 참석



( )

11월 2일 청주시 사직동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자활 한마당 행사에 참석



( 1 )

10월 26일 청주시 수동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석



( 2 )

10월 24일 단양군 단양읍에서 열린 단양중학교와 단양공고 체육대회에 참석



( 1 )

10월 24일 제천시에서 열린 제14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 5 )

11월 10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의회와 일자리 창출 바자회 참석



( )

10월 24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 주부교실 충북지부가 개최한 충북가족동요제 주관



( 1 )

10월 31일 민주평화통일 주관으로 열린 통일염원등반대회에 참석

# 가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제284회(임시회) 기간 중 다음달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실시의 건',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원안 가결하였다.

가결된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통상국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현황, 고용안정 및 실업자 보호대책 추진실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민선4기 이후 산업·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 바이오사업 육성 지원 현황,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 추진 현황 등 62건, 농정국의 친환경농산물 명품화단지 육성실적, 쌀소득직불제 추진상황, 한우광역 브랜드 추진현황,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 등 73건, 농업기술원의 사료비 절감 양질 조사료 생

산사업 현황,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농자재 개발 실적,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실적, 기능성 식품 제조기술 개발 추진현황 등 63건이며, 이외 4개 출연기관 61건 등 총 259건이다.

한편,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의 긴급 현안사항 간담회에서는 2009년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토의하였으며, 농민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통상국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생경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자 교부한 국고보조금과 희망근로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성립전 집행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 2 )

10월 6일 청원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



( 6 )

10월 8일 12월초 충북에서 개최되는「2009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협의회에 참석



( 2 )

10월 18일 제천 청풍중학교에서 개최된 총동문 한마당 체육대회 참석



( 2 )

10월 9일 옥천군 안내면에서 열린 다목적 복지회관 개관식에 참석



( 2 )

10월 19일 초평면 금곡리에서 괴산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농수로 개선사업 설명회에 참석



( 2 )

10월 10일 보은군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전에 참석



( 2 )

10월 16일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송림주변에서 개최된 제3회 보은대추축제 개막식 참석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우리도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과 서류 제출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제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기동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대책, 도심공동화 지역과 인구 급감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대책 등 오랜기간 연구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주민의 대변자로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고, 미비한 부분은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그리고 10.20~10.26까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우리도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충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1 )

10월 17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충주지역협의회 체육대회에 참석



( 3 )

10월 21일 상당구청 민원실에서 열린 국토종합계획 관련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토론회로 참석



( 1 )

10월 16일~18일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에서 열린 제3회 대추축제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 1 )

10월 10일~11일 보은에서 열린 충청북도 문화축전 개막식 및 각 경기 단양군선수단 격려차 참석



( 2 )

10월 15일 괴산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괴산군민회관에서 열린 괴산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 1 )

10월 7일 옥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지역향토부대 체육행사에 참석



( 1 )

11월 1일 음성군 평곡초등학교에서 열린 평곡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 1 )

10월 15일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에서 열린 청원학교·학부모 연합회 워크숍 참석



( . 2 )

[ ] 가?

[ : ] 오송신도시 건설은 연구·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적 녹색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첨단의료복합단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115만㎡ 부지에 총 사업비 5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송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오송 제2산업단지는 오송 생명과학단

지의 부족한 생산부지와 정주기능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9만㎡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10년에는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음.

[ ] 3

[ :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2011년까지 도비 902억원을 투입하는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보은군 “천연자원물 웰빙 산업클러스터”, 옥천군 “의료기기 기계부품 산업 클러스터”, 영동군 “고령친화 클러스터” 등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 공모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에 6개 사업, 30억원을 지원하였음.

앞으로 지속적인 낙후지역 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인사·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발전포럼을 구성하여 균형발전연구센터와 유기적 협조로 낙후지역 발전 정책과 사업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남부3군과 괴산군의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 가

[ : ] 지역특작물의 2차적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최근 3년(2007~2009)동안 지역별 특화작목과 연계한 2차적 가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향토산업과 지역특화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환으로 인삼·사과 가공시설, 배즙·감 박피기 시설을 지원하는 등 총 92억원을 투자,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추장 제조, 인삼·사과·복숭아·포도 등 지역 특산물 2차 가공시설과 가공공장 현대화 시설 장비 지원 등에 총 84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설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은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으로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753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3,815개 농장 중 3,490개 농장이 적정시설을 갖춘으로서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양돈 영농조합법인 6개소에 액비유통센터를 육성 지원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가운데 1개소는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는 추진중에 있음.

[ : ] 학생현원 확보방안은 신입생 유치 입시설명회 개최, 교직원 전담 고교 지정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도 탈락자가 최소화 되도록 취업 중심 교과운영, 다양한 학생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학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지도 강화로 중도탈락을 예방하여 내실있고 알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2 )

[ ] 가?

[ : ] 우리 도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본 계획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은 여러 실국의 업무와 관련되므로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국에서 총괄

하되, 업무소관 관련 실국과 충분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도의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우리 도의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향후 구성될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이 공조하여, 우리 도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을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에 반영해 시행계획 수립시 초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 선도사업 등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음.

[ ] 3

[ : ]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지원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도민의 역할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운영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상중인 계획으로는 시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침복단지와 연계한 중복 발전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나가겠음.

[ ] 가

[ : ]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농식품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 주요 시책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주요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사업, 향토 음식 경연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임.

또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를 위한 진흥방안으로 농민 참여형 농식품 기업

육성, 산지 농가의 식품 가공·판매사업 참여 활성화, 산지-소비자 직거래의 활성화, 식재료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 가

[ : ]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식량, 원예 및 특용작물에 대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 벼, 콩, 장미, 포도, 마늘, 수박 등을 10대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음.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2010

?



( . 5)

대한 맞춤형 인력 육성과 도민의 평생 교육 기반을 확대하여 분야별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해 나갈 것이며 수도권과 대도시를 타 것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내에 국내 유수의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으로 의학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 '2010'

[ ]

[ ]

[ : ]

[ : ]

[ : ]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은 외래관광객 5천만명 유치, 경제유발효과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전담팀 구성, 공동사업 선정 등 100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2010년에 국비 20억원, 도비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내 보건의료인력 배출현황은 매년 7개 대학에서 연 428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배출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충북의사회 및 각 병원 등을 통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노

[ :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 등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와 친구사랑 운동전개로 학생들이 배려하며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명학생교육원의 인적자원은 그간 단위학교에서 대안교육활동을 전개해 온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등 계약직 전문가 그룹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 ]

?

[ : ] 우리 도에서는 『교육강도』 실현을 도정의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지난해 2월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 지급 및 체험연수를 실시하였고 45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10층 규모의 '충북미래관'을 개관하였으며 4대 전략산업에

홍보전략으로는 『오셔유! 즐겨유! 대충청 2010』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인의 미소를 상징화한 심벌마크와 '충이와 청이'라는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였고 맛집·멋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팸투어, 전광판 등과 CF 제작, 유력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추진



( . 1)

서고 있음. 또한 고령화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창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 조기 진단비 지원 등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민선4기 현안사업으로 1,039개소 경로당심야잔기 보일러 설치사업은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음. 앞으로도 소득, 건강, 교육 수준 등 노인계층의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교육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

[ : ] 기숙형 중학교 사업은 3개교 이상의 중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여건에 따라 기숙사 이용학생, 통학버스 이용학생, 도보통학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임. 사교육없는 방과후 학교운영, 가정수준의 돌봄 시스템 도입, 우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연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 현재 소규모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많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보은과 괴산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011학년도를 목표로 추진 중임.

[ ]

?

[ : ]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여 영유아 보육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개 과제를 선정 총 4,35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시행 중임.

[ : ]

[ : ]

교육지원체계와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지원관련 3개 조례 제정과 인재양성재단 설립, 지역인재육성(RHRD)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앞으로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양극화 실태를 파악, 지역균형발전과 균형있는

[ ]

[ : ]

농촌과 도시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도심 공동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수요증가 등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을 추진중임.

도심공동화 지역 소규모학교 문제는 개발지역 인접 소규모 학교와 도심공동화 지역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개발지역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소규모학교는 통합합기준 도달연도 3년전에 미리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통합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 ]

앞으로 통폐합이 예상되는 소규모학교에는 시설투자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구 및 적령아동수를 근거로 수립한 학생 장기수용계획을 부서별로 공유하여 시설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통폐합 대상학교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

## 협심증



최근 건강하던 사람이 과로사, 돌연사를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의 90% 이상에서 심장 질환이 그 원인이 되며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관상동맥 질환이 대부분의 원인이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 관상동맥이 좁아져 간헐적으로 흉통을 느끼는 질환이 협심증이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상하게 되는 질환이 심근경색증이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조절하여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은 1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하며 이미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각자에 맞는 운동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식이요법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계란 노른자·오징어·새우나 동물성 기름·동물의 내장 등을 가급적 제한하고 생선이나 신선한 야채류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이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를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담배는 협심증에 독약과 같으므로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자에서 하루 100mg의 아스피린을 복용 시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줄고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므로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2~3개 있는 사람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산 높은 곳에서  
 풍물마당으로 날리는 가을처럼  
 누군간 훨훨 날아서 하산하고  
 언뎀은 느릿느릿 뒹굴며 하산하고  
 언뎀은 뺨가리 치며 덩실대다 치마꼬리를 놓치는  
 그러면서 적당히 슬프고 신난다 하지

더 늦기 전에 저를 버리고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곳으로  
 가끔 잠입하고 싶다고  
 저 자신을 향하여 소곤소곤  
 낙엽처럼 떨어뜨리는 귀엣말,  
 결코 착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채  
 다만, 싱싱하고 싶다고 하지

길에서 마주친 사슴의 눈빛이라면  
 그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쯤은  
 저절로 알게 될 때, 저의  
 심장이 못 다한 꿈으로 빠르도록  
 닳은 얼굴끼리 수렁거리다 풀 죽어  
 지천명이라 변명들 하지



지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리는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1960-70년대의 섬유와 백색가전산업을, 1980-90년대에는 조선과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신성장동력'이다. 이들에 대한 논거는 현재까지 우리 경제를 꾸려온 메이저산업(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의 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이른바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 분명치 않다는데 기인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천명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 이른바 Post IT의 선두주자인 BT이다. BT산업은 소위 성장산업(Star 산업군)으로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세부분야에서의 시장선점은 기술표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기반(Infra)를 육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이다. 이렇듯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송이 대구(신서)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단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전 그야말로 불모지였던 충청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오송을 국가생명과학산

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2009년 6월 준공), 연이어 6대 국책기관의 이전을 확정(2010년 12월 입주 예정)한 이래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계기로 오송은 국가 바이오산업의 허브로서 충청북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동안 오송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글로벌 임상시험병원의 입주 역시 단지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외의 유망 병원들에 대한 입주문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의료산업의 허브, 오송'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오송이 대구와 복수 지정된 일을 놓고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 대구와의 역할 분담 등 여러 가지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송의 비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동북아시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송의 경쟁자는 대구라든지 또는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에서 탈락한 지자체가 아닌 오송의 진정한 경쟁자는 일본의 고베, 태국 방콕,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등이며, 나아가서는 미국의 메릴랜드나 휴스턴 메디클러스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우리와의 경쟁에 벌써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 전세계적 바이오 관련 R&D의 집적도가 높은 싱가포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융합시킨 태국이나 인도 그리고 모든 면을 융합하고 성장하겠다는 천명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까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경쟁자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충북 오송 나아가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북 오송을 거점으로 국내 의료인프라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 구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권역의 대도시별로 의료산업과 관련된 각각의 특징점이 있다. 그리고 오송은 이러한 특징점을 연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즉, 오송이 확보한 인프라를 토대로 자체적인 첨단 의료복합단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오송이 가지고 있는 국토 중심성과 최단접근성이라는 장점을 토대로 전국의 의료인프라를 연계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